



기록한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 다음 순간이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그 다음 순간이 오면 지금 이 순간을 되돌려 보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이 순간을 붙잡아두기 위해 때로는 그 순간의 몇 배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기록은 기억에 기반한다. 긴 시간을 기억하든 아주 짧은 순간을 기억하든 숫자를 기억하든 사람을 기억하든 상황을 기억하든 기억해야 기록한다. 기억은 또 얼마나 하찮은가. 자신의 머릿 속에서 떠돌고 맴도는 지난 날의 무엇을 기어코 끄집어내 그것이 실재한다고 믿거나 믿는 척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바보 같은 짓이다. 기억은 감각에 의존한다. 외부의 자극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인간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그 감각이라는 것이 역시 얼마나 하찮은가 하면, 감각은 그저 통제불능하고 측정불가한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다. 기록과 기억, 감각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부질없이 기대어 있다. 감각을 기억하고 싶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을 잃을까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 인해 그 감각을 기억한다고 믿고, 그래서 다시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순진하고 하찮고 우스운 짓은, 그래도 어쩔 수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대부분 이렇듯 순진하고 하찮으며, 이런 우스운 짓마저 하지 않으면 길고 긴 시간을 견뎌낼 방법이 없다. 어차피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 또 할 거라면 문서를 만들기로 한다. 이름은 ‘시청각 문서’.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감각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다. B. 감각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말한다. C. 감각에 대한 기억은 글을 쓰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 것까지 유효하다. D. 오직 글로만 기록한다. E. 모든 글은 흰 종이 위에 같은 방식으로 놓여진다.

20g도 되지 않는 종이 한 두 장에, 고작 300kb에 불과한 파일에, 우주에 비춰보면 ‘없는 걸로 하자’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사소한 질량의 물체에 아무런 장식 없이 오직 텍스트만으로 기록을 남긴다. 모든 기억을 똑같은 포장지에 싣는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내용물에 대해 짐작할 수 없다. 3개월은 감각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기간일 뿐이다. 6개월은 너무 멀고, 1개월은 너무 가깝다. 감각과 기억에 관한 모든 것은 철저히 글을 쓰는 자의 몫이다. 감각과 기억 모두 뼈뽀루하다. 어느 쪽은 길고, 다른 쪽은

짧아 절록거린다. 흰 종이 앞에 앉는 순간, 글로 기억되고 기록될 자신을 떠올리며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마땅한 기억을 찾을 수 없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것을 창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마저도 '시청각 문서'로 수집하게 될 수많은 기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크기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입구에 서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전시에 관한 구구절절하고 지루한 설명을 읽고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딛을 이 곳은, 흰색 종이라는 2차원의 화이트 큐브 안에서 글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각을 전시하는 미술관일 수도 있고, 작성 시점과 작성자의 이름에 따라 수많은 문서를 일렬로 세워놓은 문서 인류학 박물관일 수도 있겠다.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이 곳에서 우리는 모두 그저 순진한 관람객이자 하찮은 관찰자이자 우스운 수집가라고 해두자.



